

# ‘당권野心’ 새정치 주자들 “바쁘다 바빠”

예산 국회가 이틀째 계속되는 속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은 27일 활발하게 움직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 전남대에서 특강을 한 데 이어 진주 경상대를 찾아 ‘도전하는 정춘은 아름답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학자금 대출 문제를 포함해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정치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본인의 각오도 전달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남은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야당)만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호남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대선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영남과 호남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호남에서 60만 표를 이겨 결국 30만 표를 앞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28일 분권성장과 균형발전 전을 테마로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다. 지난 23일 병영문화 개선을 주제로 흥대 앞 카페에서 ‘꿈심’남자 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성을 뜻하는 말)들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릴레이 현장 행보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 전남대에서 교수들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청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추 의원은 강연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자이

박지원 “호남 없었다면 박정희도 없다”

문재인, 오늘 나주 혁신도시 방문해 민심 탐방

추미애, ‘인권과 정의...청년리더십’ 전남대 특강

천정배, ‘호남의 희망’ 광주 연구소 개소

김동철,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창립식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을 창립했다. (사)민간복지포럼 이사장은 김 의원이 맡았으며 고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계 원로가 위촉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10여명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국회의원 32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창립식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 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를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30조원에 달하므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 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를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30조원에 달하므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을 창립했다. (사)민간복지포럼 이사장은 김 의원이 맡았으며 고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계 원로가 위촉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10여명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국회의원 32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창립식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 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를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30조원에 달하므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 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를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30조원에 달하므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개소식이 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영산강빌딩에서 열렸다. 이사장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초청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겸한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야, 누리예산 우회지원 막판 힘겨루기

野 “순증액 국고 지원 약속” vs 與 “5233억 들도 보도 못해”

해해 예산 심사 기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이 이틀째 이어졌다.

한때 부분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간 이견도 풀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는 27일 오찬 회동을 통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누리과정 국고 지원 규모와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를 조율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국회 파행을 부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 5233억 원을 국고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견해를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순증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들이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전

액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즉각 부인했던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안규백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준 입장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5233억 원 총액을 (국고에서) 한다는 데 대해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5233억원은 들도 보도 못한 숫자”라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의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원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접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다만 예산 부수범안에 이미 포함된 담뱃세 증세에 잠정 합의하고 이 문제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연계돼 개회기 미뤄졌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안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간극이 큰 만큼 일단 나중에는 논의하기로 정지했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안행위 법안소위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교문위 예산소위 등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예결위 예산소위를 단독을 개의, 심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방침을 공표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정 의장은 오전 집무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새누리당)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여야 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주승용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정부차원 지원 절실”

‘실버존’ 토론회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스쿨존 사례 교훈을 통한 실버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가천대 허억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의 사회로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 국토교통부 오기현 안전복지과장, 경찰청 김수영 교통기획과장, 한세대 권창희 교수, 교통안전공단 박용원 안전연구처장, 도로교통공단 이두희 교육운영처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주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



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산지원도 없다”며 “앞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병헌 “광주자동차벨리 국회 차원 지원 방안 강구”

윤장현 광주시장 만나...문화전당 현장 방문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동차

전 의원은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 사업이 노사민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완공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융복합 플랫폼으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을 마친 이후 전 의원은 문화전당을 현장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재직 당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명예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경품 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겸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 1**  
(개회식 명품 응모권 증정)

- 1등: 황금열쇠수금1남(1명)
-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용권(2명)
-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동반 1인 포함)3명
-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선물 2**  
(기념품(약10))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 3**  
(개회식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풍경지갑] [글리시크 밀폐용기세트] [세리믹코팅 냄비]

**자력기준**

- 총자산 10만원 이상 할당과제
- 당기매출 15000원 이상 가입과제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과제
- 생량과제, 자력사보통 가입과제
- 전자금융 신규자
- 자율에 3년 이상 신규자
- 체고과도 신규자(대이상 이용과제)
- 관심추진업체의 정상유지 및 이용 개제
- 상기 자력기준은 회원에 한함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풍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싸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싸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